

## 문화충위와 문화소: 번역에 대한 문화적 접근

이 승 재  
(경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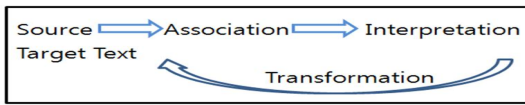
### 1. 서론

문화의 총체적 결정체인 언어가 번역과정에서 목표어문화로 재생산되는 동안 언어변형과정에 다양한 문화소가 관계한다. 작게는 단어에서부터 구절, 문장, 그리고 문단에 이르기까지 원천어 텍스트에 용해되어있는 문화를 이에 상응하는 목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은 번역에서 화두가 되어왔으며, 가능한 원전에 가까운 번역을 찾는 것은 주요 관심사이다. 언어가 단어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닌 문화로 엮어진 직조물이라고 본다면, 번역 과정은 단지 원문에서 목적어로 정보를 전환하는 단순변형의 과정이라기보다는 번역가를 매개로 원천어와 목적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언어 문화간의 중재의 과정이며, 재창조의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은 원문의 정보와 독자의 배경지식 그리고 독자가 글에 가져오게 되는 정보를 결합하는 상호과정이며, 대상 독자가 이해 가능한 형태로 다시 쓰는 작업이다.

번역을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전제한다면, 번역은 번역가에 의해 신중

히 선택되고 원천어와 명백한 관계를 갖고 생산된 결과물과 목적어 독자사이의 관계이다. 번역물을 생산하기에 앞서 번역가의 행위인 원천어를 ‘읽는다’는 행위는 명시된 표시의 시각적 차이(visual discrimination)를 인지하고 그들의 관계(association)를 이해하며, 그리고 문자 상호간의 해석(interpretation)을 요한다(Weber 1984).<sup>1)</sup> ‘읽는다’는 행위가 인식과정, 배경지식과의 관계와 해석의 지각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번역은 위의 세단계에 목표 언어로 전환(transition)되는 단계가 부가되어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과정은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원천어 문화와 목적어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해 번역물이 생산되고, 이렇게 생산된 번역물은 목적어 독자들의 인식과 지각과정을 거쳐 적절한 해석체계를 갖게 된다.

<표1> 번역과정



그러므로 아무리 단순한 번역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한 언어변환이라고 일축할 수 없으며, 복합적인 과정이 관계된다. 이러한 작용의 한 축을 형성하며 언어변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언어라 가정하면 언어를 포함하여 목적어 화자의 이해로 연계하는 다른 한축을 형성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사회 문화적(socio-cultural)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그 속성상 포괄하는 범위가 방대하므로 많은 학자들(Nida 1964; Reiss & Vermeer. 1984; Vermeer 1990,1992,2000; Porter & Samovar 1991; Hewson & Martin 1991; Aixelá 1996; 김효중 2004)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번역에서 사회문화적 부분을 언급하였으나 대부분의 접근이 아래에서 위로(bottom-up)의 언어학적 시야에 고정되어있었으므로 문화의 포괄적인 속성을 다루기에 다소 버거웠던 것이 사실이

1) 시각적 차이(visual discrimination)는 한 문자를 다른 것과 구별하는 능력이다. 관계(association)는 문자와 글자와 같은 시각적 표시 사이에서 형성된 정신적 고리이다. 해석(interpretation)은 드러나 있는 의미가 가진 문제에 여러 관계(association)를 덧붙여 푸는 능력이다.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문화이론을 중심으로 번역에 접근하여 문화적 시각에서 번역의 언어학적 측면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 2. 문헌연구

### 2.1. 문화의 구조

아처(Archer 1986)의 ‘culture bump’<sup>2)</sup>라는 용어에서 요약되듯이 번역가에게는 문화가 관련된 개념(culture-bound)이 언어외적인 현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텍스트의 의미 또는 통사적 어려움보다 언어학적 등가를 찾는 데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곤 한다. 번역이론에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접근방법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페르미어(Vermeer)는 스키포스 이론에 근거한 기능적 접근, 하티무와 메이슨(Hatim & Mason 1991)은 상황적 요소(situational factors)를 가정할 것을, 휴슨과 마틴(Hewson & Martin 1991)은 문화적 환경(cultural environment)을 고려하여 문화적 등가를 실현하기 위해 할 것을 주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은 모두 언어에서 출발하여 번역의 언어적 한계를 언어외적인 요소 즉 사회 문화적인 요소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화는 언어를 포함하여 실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할 정도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크뢰베와 클러커혼(Kroeber & Kluckhohn 1952)은 164개의 개념을 사용하여 복합적인 문화의 실체를 정의했다. 문화를 빙산에 비유한 홀(Hall)의 빙산이론(Iceberg Theory)에서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있으며, 인지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Hall 1990:16)고 한다. 카탄(Katan 1999)은 광범위한 문화를 외표적, 함의적 문화와 핵심문화로 구분하여 정의하였고, 트롬페나르(Trompenarr 1993)는 문화를 3개의 층위로 분석하여 최상층에 해당되는 외현적 층위, 규율과 가치로 구성된 중간층위, 그리고 핵심층을 구성하는 함의적층위로 구분하였다. 홉스테드는 다층구조를 가진 양파에 비유하여(skins of an onion) 문화를 핵심가치(value)와

2) ‘culture bump’라는 용어는 문화상화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문화충격보다 경미한 문제를 의미한다(Archer 1986).

실천을 통해 표현되는 표현관습(practice)으로 구분하였다(Hofstede 1991: 9).

위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언급된 문화를 총괄하여 정의하면, 문화는 한 민족의 공통된 행동유형이며, 살아온 과정을 반영하는 공통된 정신가치로서, 각 문화를 다른 문화와 구분하게 하는 기저 구조를 형성하며, 가시적으로 직관이 가능한 외부층위와 사회구조 및 관습 등을 관할하는 중간층위, 그리고 가치와 사고방식 등을 결정하는 핵심층위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번역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언어외적 현상에 대한 문화적 등가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의 복잡한 실체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고, 문화의 기본 틀과 구조에 근거하여 번역과정 및 번역 결과물과의 관계를 분석해보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 2.2. 문화분류이론

### 2.2.1. 홀(Hall)의 문화분류와 맥락의존성

홀(1976)은 언어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의 양식을 고맥락언어(high context culture)와 저맥락언어(low context culture)로 구분하여 맥락의존성에 근거한 언어별 연속체를 제안했다. 고맥락언어군에 속하는 한국어는 저맥락언어군에 속하는 영어와는 달리 언어와 관련하여 문맥의존도가 높다.<sup>3)</sup> 한국어와 영어의 맥락적 차이를 요약하여 도표화시키면 <표2>와 같다. (Katan, 1999)

<표2> 맥락의존성과 한/영 언어비교

한국어	비언어적	간접	시선교환x	감정적	우회	세월이 약이다	고맥락어
영어	언어적	직접	시선교환	합리적	직선	시간이 금이다	저맥락어

한국어와 같이 고맥락언어군에 속하는 언어에서는 언어를 통한 직설적 표현보다는 문맥의존적이며 간접적, 비언어적 요소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우회적 간접적 표현을 선호한다. 간접표현에서는 축자의미 그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별적인 의미자질보다는 조작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의

3) 고맥락군에 속하는 언어는 함의적이며 우회적이며 간접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비언어와 인간관계에 의존적이다(Katan, 1999).

미를 파악해야 한다(성백인·김현권 1991). 한국어 표현 중에 화장실을 ‘작은집’으로 쓰는 경우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주 쓰이는 ‘No’라는 표현이 실제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              |                        |
|--------------|------------------------|
| (1) a. 배고프니? | a' Are you hungry?     |
| b. 아니예요....  | b' No... <sup>4)</sup> |

위의 예문(1)에서 보이듯이 한국어에서의 부정은 실제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이상의 의미를 함의한다. 위의 문장의 모호성은 맥락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한국어처럼 고맥락언어군에 속하는 언어에서는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판단해야한다. 그러나 영어에서의 부정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단순한 부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이와 같이 고맥락어에 속하는 한국어에서는 의미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맥이나 비언어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의미를 유추해야한다.

### 2.2.2. 홉스테드(Hofstede 1997)의 문화분류와 문화충위

홉스테드는 문화를 네 가지 범주, 즉 권력구조의 차이(power distance),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 개별성(individualism), 남성성(masculinity)으로 구분하여 언어별로 문화간 차이를 측정하였다. 홉스테드에 의하면 위에서 제안한 네 가지 차원의 범주간에 차이가 클수록 문화의 차이는 커지며 언어간의 차이로 이어져서 의사소통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했다. 또한 문화는 마치 양파의 껍질처럼 피상적인 문화에서 심층적인 문화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로 되어있으며, 각각의 문화충위는 상징(symbols), 영웅(heroics), 의식(rituals), 그리고 가치관(values)으로 대표되며, 각기 표층부에서 심층부로 이어지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홉스테드의 척도에 따르면 한국어는 권력구조의 차이가 크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며, 개별적이라기보다는 집단주

4) 본 예문은 문맥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직설적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적 정서에서는 유사한 상황이 문맥적으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등등 직접적인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 상황이 많다.

의적 성향이 강하며, 남성성이 높은 문화로 나타났다. 번역도 역시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므로(Nord 1991), 홉스테드(1991;1997)의 문화이론을 문화번역과정과 연계하여, 음성형태의 의사소통에서 도출된 문화분류의 네 가지 차원이 활자형태의 의사소통인 번역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표3> 홉스테드의 문화차원(Cultural Dimension)

<b>권력구조의 차이 (power distance)</b>	<b>불확실성의 회피 (uncertainty avoidance)</b>
<b>개별성(individualism)</b>	<b>남성성(masculinity)</b>

### 3. 문화와 언어

사피어-워프(Sapir-Whorf)의 가설에서 잘 나타나있듯이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실체이며, 상징적인 문화체계이다.<sup>5)</sup> 올슨(1977)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의 사용으로 인간다워지고, 문자의 사용으로 문명화되었다고 하였듯이 언어는 문화를 구성하는 총체로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과정에서 공동체에 습득되어진 지식체계이며, 공동체 내에 공유된 생활양식, 종교, 정치, 세계관, 가치관 등을 반영하는 총체적인 문화이다.

#### 3.1. 문화소(Cultureme) 번역

문화소는 언어학의 음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문화의 근원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스코포스 이론의 페르메어는 언어를 문화의 일부로 보고 문화소의 개념

5) 어떤 두 언어도 꼭 같은 사회적 실체를 표현하기에 충분히 비슷하지는 않다. 다른 사회라 함은 단순히 이름만 달리하는 같은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구분되는 다른 세계를 의미한다(Sapir, E. 1929 "The status of linguistics as a science", Language 5).

을 “담화망에서 개념화되지는 않았지만 목적어 문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는 문화적 산물”로 정의했다(Vermeer 1990: 32). 다시 말하면 문화소란 특정의 상황에서 특정의 이해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모든 문화적, 사회 경제적 소여성을 일컫는데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원어문화권에 나타나지만 역어문화권에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르게 정의된 비언어적 현상, 제도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김효중 2004: 72). 이러한 문화의 총체로서의 언어에 내재돼있는 문화소가 번역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자.

- 2) a. 한이 맺힌다.  
 b. 곤장 사십대를 쳐라      b' Cane forty! (김효중 2004)  
 c. 쫄 심은데 콩 나고 팔 심은데 팔 난다

예문 (a)의 한(恨)은 한국의 고유한 정서이며 번역을 요하는 문화소이다. 이를 사전번역하면 (a') (*Deep*) *resentment was formed*. 이지만 본래의 허허한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감정이 희석되거나 공허한 감이 든다. (b)는 전통사회의 관례를 표현하는 ‘곤장을 치다’를 문화소로 포함하고 있으나 번역(b')에서는 의미의 농축 효과를 위해 동사를 생략하고 의미어만으로 구성된 원문보다 축약된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농경사회인 우리나라에서 흔한 곡물인 콩과 팥을 문화소로 한 속담(c)는 사전번역하면 (c') *As one sows, so shall he reap*. 으로 의미가 일반화된다. 이것을 영역하는 과정에서 목적어문화를 고려하여 (c')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린다*(김효중 2004)로 의역하였다. 위의 예에서 보이듯이 곤장(b)처럼 가시적인 문화소는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고유한 정서를 포함하거나(a) 환경이 다른 문화권의 다른 문화소를 포함한 경우(c)는 의미가 상실되거나 목적어문화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 3.1.1. 속담번역과 문화소

속담은 옛날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는 짧은 경구로서 옛사람들의 생각과 지혜, 생활모습, 교훈 등이 농축적으로 함의되어있는 간결하고 자주 쓰이는 문구이다. 예를 들어 우리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표현과 ‘금보기를 돌같이 하

라 라는 표현이 있다. 전자는 우리사회에서 침묵의 함축적인 담화상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며, 후자는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를 표현한다.

위에서 제시된 속담의 번역작업에서 ‘금’이라는 동일한 매체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문화의 차이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며 언어속에 내재해 있는 문화의 해석과 변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3) a. 침묵은 금이다.                    a' Silence is Gold.  
       b. 금보기를 돌같이 해라        b' See Gold like a stone.

(3)에서 제시된 속담을 문자 그대로 번역할 경우 (a')에서 ‘Silence’는 ‘Gold’가 되고, (b')에서 ‘Gold’는 ‘stone’이 된다. 목표어 문화권에서는 침묵이 차지하는 인지적 지위가 원천어문화권과 다르므로 단어에 맞추어 일대일 번역된다면 진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금’을 매체로 표현하는 서양의 속담 중에 시간에 부가되는 가치의 중요성을 표현한 ‘시간은 금이다.’라는 표현이 있다. 시간과 관련하여 우리 속담에 ‘세월이 약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4)에 제시된 두 예문은 시간에 대한 각 문화권의 인지해석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4) a. Time is Gold.                    a' 시간은 금이다.<sup>6)</sup>  
       b. Time heals all wounds.        b' 세월이 약이다.

따라서 간단한 문장에서도 언어와 문화는 일대일 대응과정의 단순한 치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Lakoff & Johnson(1980)은 ‘You’re wasting my time.’ ‘You’re running out of time.’ 같은 예문에서 표현된 ‘TIME IS MONEY’(시간은 돈) ‘TIME IS A LIMITED RESOURCE’(시간은 한정된 자원) ‘TIME IS A VALUABLE COMMODITY’(시간은 가치 있는 물품)라는 개념은 언어 표현으로 실현화된 은유적인 개념이라고 했다(노진서 2005).



### 3.1.2. 관용표현과 문화소

문화간의 차이가 언어에 나타나는 예로 영어에서 고정적으로 쓰이는 인사법이 있다. “How do you do?”, “How are you?”, “Hello”, “Hi”, “Nice day, isn't it?”,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sup>7)</sup> 등이 그 예이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관용적으로 쓰이는 인사법이 있다. 즉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날씨가 좋죠?’ ‘어디 가세요?’ ‘출근하세요?’ 등등이다. 영어의 관용적 인사표현은 언어변환으로 한국어로 바꾸었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인사표현에서 ‘식사하다’, ‘출근하다’, ‘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사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개별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sup>8)</sup> 이러한 시간의 개념에 따르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홀은 맥락상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으며, 나이다(1982)는 전통위주의 사회(parataxis)와 사실위주의 사회(hypotaxis)의 문화차이로 설명하고 있다(Nida, 1982: 16).

위와 같이 언어변환이 비교적 단순한 언어의 기본단위인 단어나 문장의 수준에서도, 문화소의 해석이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번역단위가 커지고 문화연관성의 농도가 짙은 일단의 언어군(discourse)을 치환하는 번역작업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언어변형과정으로 보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문화 간의 연결고리(association)를 발견하고, 이를 변형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7) 인사표현에서 보이는 시간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한국어와 같이 고맥락언어군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시간개념으로, 저맥락언어군에서는 단발적 순서적 시간개념으로 설명하였다.

8) 유사한 인사표현의 차이가 중국어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어의 흔한 인사표현으로 “吃飯了嗎”(Have you eaten your meal), “去哪儿呀”(Where are you going), “去上班啊”(Are you going to work), etc. 가 있다. 이것을 영어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였을 때 생기는 동사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 3.2. 문화분류와 번역

문화의 총체로서의 언어가 읽는 과정에서 언어장애, 필요한 어휘부족, 부적절한 추측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방해를 받듯이, 번역과정에서도 원천어와 목적어 사이의 언어간·문화간 간극은 번역등가의 문제를 야기한다. 문화번역에서 발생하는 번역등가에 대해서 휴슨과 마틴은 “번역은 문화간에 가교가 불가능한 차이나 긴장을 노출시키고 이를 중개하거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Hewson & Martin 1991:25)”고 하여 번역등가에 대해 다소 융통성 있는 해석을 제안했다. 나이다도 “번역은 원천어에 가장 자연스러운 목표어를 재생하는 과정”이므로 (Nida and Taber 1969: 12) 번역등가는 각 언어에 내재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동일성 정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언어에 내재하고 있는 문화소를 인지하고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천어-목표어간 기능적 동일성에 접근하기 위해 문화를 하위분류하여 문화번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자.

#### 3.2.1. 홀(Hall)의 문화분류와 번역

맥락적 차이에 근거한 홀의 문화분류에 따르면, 한국어와 같이 맥락의존성이 높은 고맥락어에서는 비언어적, 간접적 표현, 감정적, 우회적 표현에 대한 선호성이 높고, 시간에 대해 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간에 대해 살펴보자.

##### ① 문화번역과 시간

3.1.2.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상에서 흔히 쓰는 인사표현에서도 언어변형이상의 문화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어의 인사말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과 같은 상투적인 표현이 한국어로 번역되면, 글자 그대로 ‘좋은 아침/점심/저녁’으로 번역되지 않고 시간 중립적으로 ‘안녕하세요’로 번역된다. 영어의 인사표현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시간적 구분이 모호하게 되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권의 문화의 차이, 즉 시간에 대한 관념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영어권에서는 시간이 중요한 인지의 대상이므로, 시간을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단일시간권(monochronic)문화로 사건이 순서적으로 발생한다. 한국어에서는 시간이라는 대상의 중요성보다는 담화자 주체의 중요성이 더 크므로 사건이 담화자를 중심으로 다발적으로(polychronic)발생하며, 순서적인 시간의 개념을 따르고 있지 않다. 즉 시간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영어권문화와 한국어문화의 언어 차이로 표현되고, 부속적으로 번역에서 문화의 차이로 반영되므로, 문화의 이해는 번역과 번역생산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② 문화번역과 간접표현

한국어와 영어가 속한 언어군의 차이는 표현방식에서도 차이를 가져온다. 김정우(2003)는 원문을 옮기는 과정에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혹은 수동문을 능동문으로 옮기는 것이 유효한 경우를 지적한다.

- (5) a. Say the truth.      a'. 거짓말하지 마  
b. Wake up!            b'. 졸지마! (김정우 2003)<sup>9)</sup>

예문 (5)에서 보이듯이 영어의 직설적 표현(a,b)이 한국어로 번역되면 우회적 혹은 부정적 표현으로(a',b') 바뀌고 있다. 물론 (5)의 각 문장에 직접적인 한국어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나 표현의 직접성이나 효과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5a',5b')이 더 선호된다. 이것은 영어와 한국어의 문화적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예문 (5)의 번역에서 보이듯이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선호하며 이러한 번역상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 ③ 문화번역과 감정표현

한국어는 고맥락어군에 속하며 관계중심적인 언어이다. 아래 주어진 원문 (6a, b)는 한국관광공사의 국립경주박물관 안내번역물이다. 광고성 홍보물이므로 주어진 원문 텍스트에 다양한 형용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사물에 대해서 감성적이며 우회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회적이며 감성적인

9) 본 예문에서는 문맥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직설적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부정으로 해석하여도 의미의 변화가 없으며, 실제 언어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이것을 간접적 표현으로 본고에서는 해석하였다.

부분을 영어로 번역할 때, 사실 중심적인 저 맥락어군에 속하는 목적어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사실전달에 중점을 두고 감정적 설명부분을 자제하고 있다. 또한 (6b)에서는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삭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언어별 맥락적 관계는 번역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a) 이 기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럼 이것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가 단지 희귀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신라 여인의 얼굴이 보여주는 인위적이지 않으면서도 감탄할 만한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지요. 섬세하게 새겨진 시원스런 눈매와 부드러운 콧날, 그리고 웃을 듯 말 듯 묘하게 수줍은 미소가 감히 모나리자에 견줄 만하지 않나요? (국립경주박물관-미술관-01)

Look into the face of roof tile. You will realize why it got the spotlight. The smile of Silla woman has a pure natural beauty. Sharp eyes, round nose and mysterious shy smile... can't it be compared to Mona Lisa?

(7)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작은 얼굴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듯 숨어있죠. 높은 곳에 올리면 보이지도 않을 작은 장식에까지 자세하게 공을 들인 장인의 섬세함이 돋보이죠 (국립경주박물관-미술관-07)

Smiling small faces are hidden as if they were doing hide-and-seek. We can see the artisan's delicacy to work for little detailed of the roof tile.

#### ④ 문화번역과 맥락적 통사구조

맥락적 차이에 근거한 홀의 문화분류는 한국어와 영어구문의 통사적 차이<sup>10)</sup>와 더불어 번역구문에서 번역의 양적 증가를 가져온다.<sup>11)</sup> 고맥락어에 속하

10) 언어학적으로 보았을때, 한국어는 영어는 음운, 의미, 통사적으로 이질적인 언어이다. 즉 영어는 머리어가 문두에(head-initial) 나오는 데 비해, 한국어는 머리어가 문미에(head-final)위치한다. 이러한 언어학적 차이는 번역을 할 때 역방향 어순(reverse word-order)을 초래한다. 또한 영어는 주어의 받드시 가정해야하는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주어의 생략이 자유로우며 주어의 자리가 유동적이다.

는 한국어에서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거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영어와 같은 저맥락어에서는 언어화된 것에 비중을 두므로 번역에서도 양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 (7) a.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Whenever a market day came at the intervals of five days, he crossed from one town to another as sure as the moon in the sky.
- b. 드팀전 장돌림을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희생원은 봉평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Twenty years had elapsed since he first began making the rounds of the markets, but during this period it had been unusual for Ho Saeng-won to omit Pongpong market. (김순영 2009: 48, 51)

(7a)를 분석해보면, 한국어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위자가 생략된 문장으로 무생물인 ‘장날’이 형식적 주어자리를 차지하며, 형식상으로 한 문장이다. 이에 비해 영어번역에서는 복문의 형태를 띄고 있고 있으며, 각각 ‘market’ 과 ‘he’가 주어가 된다. 마찬가지로 (7b)의 경우도 한 문장으로 처리된 한국어가 영어번역에서는 복합문의 형식을 띄고 있다. 따라서 통사적 맥락적 차이가 번역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2. 홉스테드(1997)의 문화분류와 번역

#### 3.2.2.1. 홉스테드의 문화차원과 번역

홉스테드는 각 국가의 문화적 차이를 개인주의/집단주의, 상대적 권력거리, 불확실성회피, 남성주의-여성주의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표3>에서 보이듯이 문화차원(Cultural Dimension)으로 분류하였다. 본 장에서는 2.2.2.에서 언급한 홉스테드의 다층적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 즉 권력구조, 불확실성, 개별성, 남성성을 문화소의 개념으로 보고 이를 문화번역과정과 연계해서 살펴보겠다.

11) 한영번역의 경우 영어대역본이 원천어와 비교했을 때 125% 문장의 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재 2010)

## ① 문화번역과 권력구조

한국어의 경우 성별 혹은 연령에 따른 확연한 권력구조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한국어에서 발달된 다양한 경어형태로 표현된다.

(8) a. 선생님은 어느 당에 소속되었습니까?

What party do you belong to? (이영옥 2000)

b. 인원왕후가 이부(耳部)가 어두오션 잘못 듣자오시고 “그러하라,” 대답하시오니

She was hard-of-hearing and so misunderstanding what the King had said, she replied, “Do as you wish.” (김영신 2009: 65)

그러나 예문(8)의 영어번역에서 보이듯이 한국어의 경어표현이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영어에서는 희석되었다. 여기에서 경어표현은 한국의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소이나 어휘로 표현될 수 없다. 문화 속에 용해되는 권력구조의 차이를 목표어의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은 번역가의 몫이며, 이것은 번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화소라고 할 수 있다.

## ② 문화번역과 불확실성의 회피

불확실성의 회피는 모호성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이탈된 행동이나 사고보다는 일치를 강조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현상이다. 홉스테드에 의하면 한국어는 불확실성회피가 높은 언어에 해당된다.<sup>12)</sup> 이것은 주로 음성차원의 언어 현상에서 보이고 있으나, 문자는 이미 활자화된 확실성에 근거한 커뮤니케이션이므로 문자화된 언어표현에는 적용되지 않는 척도라고 사료되어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③ 문화번역과 개별성

미국과 같이 개인을 가장 중요한 사회단위로 보는 개인중심의 사회와 대비적으로 한국은 집단 속에서 개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받는 집단적 사회이다.

12) 역경이 많은 문화를 가진 민족에게서 높은 불확실성회피 경향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을 수업현장에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자율적인 토론이나 의견제안보다는 교수자중심의 수업을 선호하는 한국식수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국어는 개별성보다는 집단위주의 사고 혹은 가족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다.

(9) 우리 집에 놀러와

Please come to my house.

예문(9)에서처럼 한국어에서는 ‘우리’라는 무리개념 속에 ‘나’라는 개별성이 묻히거나 혹은 ‘나’라는 어휘가 생략되고 문맥속에서 유추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예문 (9)의 영어 번역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의 ‘우리’가 영어의 ‘I’로 번역되는 것은 문화에 근거한 개별성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집단위주의 사회에서는 언니, 조카, 이모, 아줌마 등 다양한 관계중심적인 언어가 많이 사용된다.<sup>13)</sup> 예문 (10)을 살펴보자.

(10) 본디 정치를 화평옹주 버금으로 사랑하시더니

He had always loved Princess Hwawan, that is Madame Chong,  
next to Princess Hwapyong. (김영신 2009:69)

예문(10)에서 한국어 원천문에 사용된 관계중심적인 표현인 ‘정치’는 영어 번역에서 Madame Chong으로 번역되고 다시금 Princess Hwawan으로 개별화되었다. 따라서 개별성은 문화번역에서 중요한 문화소를 구성하며, 개별성을 추구하는 문화의 차이가 번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④ 문화번역과 남성성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는 남녀의 역할구분이 명확하며, 여성의 언어와 남성의 언어가 구별된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이러한 현상은 존재하지만 일본의 경우 특히 남성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의사소통에서 남성은 강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하며, 여성은 민감하고 약한 언어를 선호한다(Jandt 2007:233). 한국어

13) 박진임(2004: 103)는 한국문학번역에서 나타나는 가족관계의 범주를 넘어서 나타나는 가족관계 호칭 즉 형, 언니, 아주머니, 아저씨의 호칭에 대해 공동체 중심의 한국 사회의 특성이며, 이를 단순히 친족용어로 brother, sister 등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며, 이름으로 대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 경우 활자화된 문헌에서 남성 지시대명사가 여성 지시대명사를 대치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 (11) 내가 보라양을 처음 알게 된 건.... 그가 많은 운동 중에서 레슬링을 선택하게 된 것은... 보라양은 처음에는 축구를 하려했다. 하지만 조 감독의 눈에 띄면서 그의 운동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다. .... 그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나는 우리나라 여자 레슬링경기 수준이.... 작은 소녀의 괴력, 그녀는 분명 이시대의 스타 탄생을 예고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어느 작은 소녀의 꿈; 장석영)

예문 (11)을 번역하려면 먼저 대명사 ‘그’의 성별을 결정해야 한다. 한국어의 경우 ‘그’는 보통 남성을 지칭하는 대명사이며, 여성형으로 ‘그녀’가 있지만, 예문 (11)에서 보이듯이 남녀를 통칭하는 지시대명사로 쓰인다.<sup>14)</sup> 이것은 한국어에서 보여지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영어로 번역을 할 경우 ‘보라양’이나 ‘여성 레슬링경기’등의 문맥을 참조하여 남성 지시대명사 ‘그’를 중성적인 통칭으로 이해하고 문맥에 맞추어 여성형 지시대명사 ‘she’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문화는 다양한 면에서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언어에 표현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격식표현이나 종결형어미, 우회적 표현 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여성들은 비격식적이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언어사용을 선호하는데 비해(...해요, ...해줄래?) 남성표현은 격식적이며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경향이 있다(...합니다, ...해라).<sup>15)</sup>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근거한 직·간접적인 메시지나 함축이 포함된 원문의 의미를 목적어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번역이 수용언어문화에

14) 2011 추계학술대회에서 여성 삼인칭 ‘그녀’의 사용에 대해 조언을 주신 조재범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 삼인칭 ‘그녀’는 해방후에 작가 김동리가 쓰기 시작하여 현재 한국어의 삼인칭 여성형으로 보편화되었으며, 일어식 조어에 영향을 받아 (彼女 : kano jyo 그녀), その山 : sono yama 그 산, 彼 :kare, 그 남자) 관용형 지시사 ‘그’에서 조어된 표현이다.

15) 2011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어의 남성표현 선호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서 얼마나 잘 기능하느냐는 문화소를 다루는 번역가의 이해와 능력으로 남게 된다.

### 3.2.2.2. 홉스테드(1997)의 문화층위와 번역

홉스테드(1997)의 문화층위(Cultural Layer)이론은 “문화의 심층적 단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번역과정에서 번역몽치(chunk)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인 증가와도 관련된다. 즉 문화층위이론에서 표층을 구성하는 태극기의 상징성(symbols) 역사적 배경지식을 동반해야하는 영웅(heroes)을 설명하는 것 보다 용이할 것이며, 실존했던 인물을 설명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가상적인 의식(rituals)을 설명하는 것 보다는 훨씬 간단할 것이다. 또한 의식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문화의 심층부를 구성하는 민족적 가치(values)를 설명하기 보다는 쉬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심층구조에 작용하는 가치는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기저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실체를 확인하는데 표층부에 작용하는 상징보다 여러 겹의 해독(decoding)의 과정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번역에서도 더 많은 설명이 요구된다.

#### ① 문화번역과 상징

상징은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인식하는 기호체계로서 홉스테드의 문화의 표면층을 형성한다. 여기서의 상징이란 가시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는 즉각적 설명과 이해를 동반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태극기, 광화문 앞의 해태, 경복궁 내부의 왕좌에 그려진 용의 문양 등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가 관련된 열녀문의 한영번역을 비교해 보았다.

- (12) 민속촌 열녀문은 조선조 말 황부인(黃婦人)의 효행과 열행의 뛰어난 행실을 추앙하고 찬양하기 위해 세워진 정문으로서, 효열각이 함께 세워져 있다. 정절을 충실히 지키고 행실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나라에서 열행(烈行)을 기리기 위해 열녀문이라는 정문을 세워 후세에 교훈으로 삼고자 하였다. (한국민속촌 홈페이지)

This monument was set up to commemorate a faithful woman,

Hwang, for her filial piety to her parents-in-law and faithfulness to her husband. The main door was built under order from the royal court and became an educational monument to educate future generations of filial piety.

번역가가 독특한 상징물을 설명할 때, 그들은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용문화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사전 지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위의 열녀문에 대한 영역에서는 원천어에 대한 번역이라기보다는 목표어재생산에 가깝다. 문장의 일대일대응이 불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었으며, 번역가는 직접 관계가 없거나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 과감한 삭제(효열각이 ..... 행실이 뛰어난 사람에게는)를 했고 열녀문과 같은 고유명사에 대해서도 직접번역을 하지 않고 설명으로 대치했다.

## ② 문화번역과 영웅

영웅은 어떤 문화권에서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인물이다. 각 국가나 조직에 그들이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행위모델이 되는 실존인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대표적인 성군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광개토왕은<sup>16)</sup> 선사시대의 정복왕(warrior king)에 해당되며, 한국전쟁은 미국의 남북전쟁로 이해한다. 역사적 인물이나 실존적 존재를 번역할 때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번역가의 배경지식과 더불어 목적어 독자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야한다.

### (13) 세종대왕

1413년 16살에 충녕대군(忠寧大君)이 되었다. 그 뒤 1418년에 태종이 만형이자 동복 형인 양녕대군을 태종이 신하들과의 회의에서 “법을 존중하지 않는 세자가 군주가 된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허를 찌 정도로 심각한 비행으로 왕세자에서 폐위되자 충녕대군의 학문이 높이 평가되어 황희 등 일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22살의 그를 새 왕세자로 책봉하였다가 같은 해 음력 8월에 선위하였다. 부왕이 왕세자를 폐위할 것을 예감한 효령대군은 세자자리를 기대하였으나, 양녕대군은 충녕대군에게 세자자리가 갈 것이니 포기하라고 하였다. 부왕이 금지한 불

16) 광개토왕과 관련된 번역관련 자료는 박순봉 최희섭(2009)를 보시오

교에 호감을 갖다가 심취하게 된 효령대군은 바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http://ko.wikipedia.org/>)

Sejong's ascension to the throne was different from those of most other kings. Taejong's eldest son, Yangnyeong (양녕대군), viewing himself as lacking in the requisite skills for kingship, believed that his younger brother Sejong was destined to become king. He believed it was his duty to place Sejong as king, so he acted rudely in the court and was soon banished from Seoul. This plot ultimately brought Sejong to the throne. The eldest prince became a wandering traveler and lived in the mountains. The second son traveled to a Buddhist temple, where he became a monk. In August of 1418, following Taejong's abdication two months earlier, Sejong ascended the throne. However, Taejong still retained certain powers at court, particularly regarding military matters, until he died in 1422. ([http://en.wikipedia.org](http://en.wikipedia.org/))

세종대왕과 관련된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얼핏 보기에도 번역이라기보다는 번역가가 다른 원문을 참조하였거나 재량적인 창조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결과물로 원문과 번역문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번역문의 밑줄 그은 부분들은 원문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로 번역사가 다른 참고자료에 근거하여 임의적으로 내용을 첨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상당부분 원문에 포함된 내용이 임의적으로 삭제되거나 내용전달에 자체에 비중을 두고 있다.

### ③ 문화번역과 의례

의례란 한 문화권에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약속된 집단적 행동을 말하며, 제례의식, 사회적·종교적인 의식 등을 들 수 있다. 17)

17) 남원준(2011)은 문화소가 포함된 한국어의 영어번역에 대한 연구에서 '제례'라는 한국어의 전통적 고유명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영어번역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교의식이나 절차에 친숙하지 않은 목표어문화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사의 해설이 포함된 *rites to honour ancestors*로 영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문화소가 포함된 최소단위인 고유명사를 설명하는 데에도 다양한 번역과 설명을 통한 번역가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문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의례에서는 번역사의 중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14) a. 마을입구에는 입석과 돌탑, 솟대, 당나무, 당집 등이 세워져 있으며 이를 매개로 신에게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삶의 풍요를 기원하였다...서낭당에는 매년 정초에 원새끼로 끈 금줄을 쳐서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고, 마을 주민들이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그리고 농사가 풍년이 들도록 택일하여 제사를 지낼 제관과 음식을 준비할 당주를 뽑아서 대동제를 지낸다.(한국민속촌 홈페이지)

All villagers came together and performed the ritual service in front of a big shrine tree, piles of stone, a shrine, milestone, a stone pagoda and a wooden totem pole, praying for peace and prosperity with offerings in early January.

- b. 양가가 혼인하기로 결정이 나면, 약혼의 정표로 서로 사주단자를 교환하며, 청혼서와 허혼서를 주고 받고 손 없는 날을 받아 혼인날을 택일한다. 택일할 때 서로 예물과 혼물을 교환한다.(한국민속촌 홈페이지)

The procedures that followed were sending silk, checking gunghab (marital harmony as predicted by a fortune teller) and exchange of saju (a letter to the house of the bride-to-be in which the Four Pillars, date and time of the birth of the bridegroom-to-be are written) and fixing a date for the ceremony.

위의 두 예에서 보이듯이 많은 부분이 번역가의 자유의사에 의해 의미전달에 그 목적을 두고 재작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밑줄 그은 부분들은 번역에서 의미전달을 상위의 목표로 두고 임의 변형되었거나 혹은 번역사의 재창조작업이나 다른 원문을 참조하여 변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문화번역과 가치

가치란 상징, 의식, 영웅 등을 결정하는 문화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으로 문화의 가장 심층부를 형성하며, 정적이고 안정적이고, 개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 (15) 불교국가였던 고려와는 달리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다. 유교에서는 효(孝)를 중시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겼다. 왕은 효를 실천하고 선왕께 제사를 지냄으로 백성에게 모범을 보였다. 사직이란 토지신과 곡물신을 이르는 말로, 땅과 곡식이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사직단을 지어 왕이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지낸 것이다.

There are a number of rituals which are considered important forms of rite, and the most significant of these in Korea are the Jongmyo and the Sajik rituals. Jongmyo is the term used for a place where memorial services are performed for deceased kings, and Sajik is the term for a place where services for the Gods of Earth and Crops are performed. These rituals are symbols for nations themselves in that they guarantee order and successful ruling of the nation. Consequently, due to the importance of these rituals, the Jongmyo and Sajik shrines where the rituals are performed are classic in their architectural grace, detail and beauty. (종묘 홈페이지)

예문 (15)은 종묘의 홈페이지에서 한영번역물을 인용하였으나 영문의 분량을 보더라도 번역이라기보다는 다른 문헌을 참조하여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재창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문의 밑줄 부분은 번역문의 양에도 불구하고 번역가가 번역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삭제되었거나 상대적으로 내용이 경감된 부분이다.

위에서 살펴본 문화충위와 관련된 예문(12-15)는 문화소의 문화관련성 정도에 따라 번역가의 개입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문화가 깊이 관련된 문헌의 경우(15), 번역본에 대해서도 번역의 등가성을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번역가의 자의적인 개입이 상당히 많았다. 이것은 한 문화의 핵심 가치에 근접할수록 번역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번역사의 문화중재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한국어와 영어처럼 문화의 차이가 큰 언어에서는 사회 문화적 배경지식이 번역에 더욱 필요하다. 테프트(Taft 1981)가 언급하였듯이, 문화 번역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역사와 문화 지식을 필요로 하며 위와 같은 영역의 기여는 번역에서 중요한 사항을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다.

## 4. 문화번역

### 4.1. 문화분류와 문화소

언어학에서 최소 구성소가 다른 구성소를 만나 더 큰 구성소를 형성하듯이 문화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문화소를 3장에서 제시한 문화이론에 근거하여 하위분류시키고, 이것이 관계하는 층위를 홉스테드의 이론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표4> 문화번역과 문화소

언어적요소	언어구성소	문화소			문화층위	
	통사구조	문화분류	시간	직접성		
문화적요소		홀	사실성	맥락관계성		
			홉스테드	권력	개별성	상징
		남성성		확실성	의례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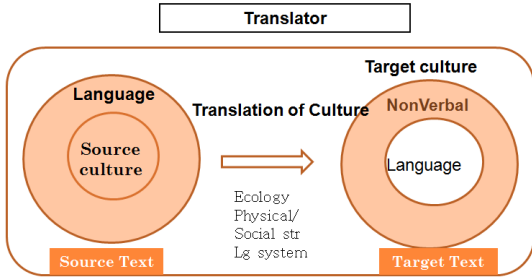
언어를 문화의 일부로 보았을 때 문화번역은 언어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로 구성된다. 언어적 요소에는 언어구성소로서 통사구조적 차이로 요약될 수 있다. 문화번역의 문화적 요소는 문화소로 표현되며, 이것은 홀의 문화분류 이론에 의거하여 각각 시간성, 직접성, 사실성, 맥락관계성 등의 문화소를 포함하며, 홉스테드의 분류에 의거하여 권력구조, 개별성, 남성성, 확실성 등의 문화소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소가 비교적 큰 단위로 작용을 하게 되면, 문화층위를 고려해야한다.

### 4.2. 문화층위와 번역가

문화층위가 심화되고 문화소의 범주가 커질수록 번역과정에서 번역가의 개입과 조작이 기대된다. 문화번역에서 번역가는 원문을 분석하고 문화소를 해결하고 수용가능한 형태로 원문을 해석하여 목표어로 재표현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문화 해석능력과 동시에 문화의 재생능력을 동시에 갖춘 독자이며 텍스트

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레이스와 페르메르(Reiss & Vermeer 1984)는 번역가는 다국어 사용자일 필요는 없으나 다문화에 능숙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번역에서 원천어와 목표어 문화를 아는 것은 번역의 충분조건이 아니며 번역가는 두 언어 사이의 관련성과 동등성을 이해해야 한다(Straight 1981).<sup>18)</sup> 따라서 문화 번역의 층위가 심화될수록 번역가는 원천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뿐 아니라 원천 문화권과 목표어 문화권의 사회 문화 체제에 대한 인지를 (cognitive frame)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갖춘 이중문화 능통자로서 문화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Taft 1981:53).

<표5> 문화번역과 번역사



### 4.3. 문화번역과 번역지침

문화재청에서 발간하는 영자홍보물인 『Korean Heritage』<sup>19)</sup>를 보면 목적어 문화권의 독자를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국문화가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Korean Heritage』는 문화재청 발간물인 『문화재사랑』이라는 원문을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국문월간지나 문화관광책자등을 참

18) Straight (1981)은 문화를 중재하는 이중언어 구사자 혹은 이중문화능통자로서 번역가에게 필요한 언어와 문화의 필요조건으로 생태(기후, 지리, 동식물 등등) 물리적 구조(주거형태, 기술 등등), 사회구조, 심리적 유형(세계관, 타부, 초자연적 개념 등등), 언어구조(음성체계, 단어구조, 단어의미, 통사구조 등등)을 명시하고 있다.  
 19) 영자홍보물은 번역팀은 팀장과 코디네이터 3명의 상근직, 외주 번역사 1명, 감수자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자는 한국문화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번역경험을 갖고 있으며, 감수자는 동양계외국인으로 두문화권에 익숙한 사람이다.

조로 하며, 필요시에는 원고를 의뢰하기도 하여 상당히 많은 변형과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 목표문화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번역물을 생산하고 있다. 번역의 원칙은 원본을 따르되 독자의 이해를 위주로 번역자 재량에 의한 번역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도 있는 문화번역에서는 언어의 전환 이상의 언어와 문화개입 및 중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번역사는 두 문화의 중재자로서 기능적 등가가 선호되는 번역물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2.2.에서 살펴보았던 한국문화관련 예문(12-15)들도 문화재청과 유사한 번역전략과 지침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며 원문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한 번역사의 개입과 다른 관련자료의 참조를 통해 재창조의 과정에 의해 생산된 번역물이다. 즉 번역의 단위가 커지고 문화가 심화될수록 번역사의 개입이 두드러지고 두 언어사이의 언어학적 번역등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으며 오히려 기능적 등가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를 번역하는 번역가는 문화해석능력과 문화배경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어야 하며,<sup>20)</sup> 이러한 면에서 번역가는 기능적 등가를 위해 두 문화에 긴밀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문화번역과정에 작용하는 문화소를 명시화하기 위해서 문화와 관련된 이론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문화분류이론을 중심으로 번역에 관여하는 번역소를 규명해보았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문화이론 중에서 홀의 맥락이론과 홉스테드의 문화층위와 문화차이의 척도를 번역의 시각에서 재정리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문화분류이론을 번역예문을 통해 문화번역에서의 문화소와 연결시켜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의 심화층위는 문화번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문화소로 개념화시킬 수 있었다.

20) 실제로 문화번역을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번역작업에 상당부문을 번역사의 역량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제도번역에서 전문번역기관의 부재, 그리고 번역 가이드라인의 부재와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번역물 관리를 위해서는 번역사의 자질 향상과 더불어 관련기관의 번역정책수립이 병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번역에서 문화의 층위가 깊은 문화 특정적(culture-specific) 가치와 함축적 정보의 해석은 배경지식을 달리하는 독자들에게 배경 지식의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목적어 독자들의 문화배경에 합치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도록 번역가의 문화중재자로서의 역량을 요구한다. 따라서 심층적 문화를 다루는 번역가는 문화배경과 지식 그리고 문화의 조율능력을 동원하여 원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목적어로 재창조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번역가의 의사소통 능력은 문화간, 인지적, 전략적 또는 문제해결능력 모두를 포함한다(Wilss, 1990:26).

실제로 문화번역을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번역지침에서도 번역가의 문화해석능력에 상당부분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문화번역은 휴슨과 마틴(1991)의 번역상대론적 입장을 옹호하며, 번역가의 판단에 따라 원천문헌을 관련구조 내에서 의미재생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벤자민(Benjamin 1989)의 본래의 의미(original meaning)는 없지만 본래 의미의 상호작용(an interplay....of original meanings)으로 이해하여야 한다(1989: 44).

### 참고문헌

- 김도훈 (2006)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부산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7(2): 31-51.
- 김영신 (2009) 「한중록(閑中錄)과 The Memoirs of Lady Hyeogyong 비교연구 - 충실성과 가독성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0(3): 51-75.
- 김정우 (2003) 「자연과학 텍스트의 번역방법론 시론」, 『번역학 연구』 4(1): 25-49.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푸른사상
- 남원준 (2011) 「한국 문화소의 번역 교육: 학부 한영번역교과에 관한 사례연구」, 『제 11차 통번역연구 국제학술대회발표집』
- 노진서 (2005)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속담 번역」,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7(1): 19-49.
- 박순봉 · 최희섭 (2009) 「중원 고구려비 영문안내판의 문법적 오류」, 『번역학

- 연구』 10(3): 99-119.
- 박윤철 (2009) 「불경번역방법에 관한 제언」, 『번역학 연구』 10(3): 121-139.
- 박진임 (2004) 「문학번역과 문화번역: 한국문학작품의 영어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 연구』 5(1): 97-111.
- 성백인 · 김현권 (1991) 『언어학 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이근희 (2005) 『이근희의 번역산책: 번역투에서 번역의 전략까지』 한국문화사
- 이영옥 (2000) 「한국어와 영어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2): 47-76.
- 장석영 (2003) 「어느 작은 소녀의 꿈」, 『순수문학』 10(12): 145-147.
- Lee, SJ (2010) 「Cultural Translation: A Case Study of Kyeongbokgung Palace」, 『번역학 연구』 11(1): 311-337.
- Aixelá, Javier F.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Román Álvarez and M. Carmen-África Vidal (ed.)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Archer, C.M. (1986) 'Culture Bump and Beyond', In J.M. Valdes (ed.) *Culture Bound: Bridging the Gap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Cambridge U.
- Benjamin, Andrew (1989) *Translation and the Nature of Philosophy: A New theory of Words*, London: Routledge.
- Bochner, S. (1981) *The Mediating Person: Bridges between Cultures*, Cambridge. MA: Schenkman.
- Hall, E.T. (1976) *Beyond Culture*, New York: Anchor Books.
- \_\_\_\_\_ 1990.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 Germans, French and Americans*, Yarmouth: Intercultural P.
- Hewson L. & J. Martin (1991) *Redefining Translation: The Variational Approach*. London: Routledge.
- Hofstede, G. (1997/2005)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2nd ed.), New York: McGrawHill.
- Jandt, F. (2007) *An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dentities in a global communit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Katan, D. (1999) *Translating Cultures: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Mediators*, Manchester: St. Jerome
- Kroeber, A. & Kluckhohn, C. (1952/1963)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New York: Vintage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 Leppihalme, R. (1997) *Culture Bumps: An Empirical Approach to the Translation of Allusions*, UK: Multilingual Matters.
- Nida, Eugene A. (1964) *Towards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_\_\_\_\_ (1982) *Translating meaning*, San Dimas, Cal.: English Language Institute.
- Nida, Eugene A. and Charles R. Taber (1969/ 1982)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Nord, C. (1991)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Amsterdam: Rodopi.
- Reiss K. & H. Vermeer (1984)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Tübingen: Niemeyer.
- Samovar, Larry A & Richard E. Porter (1991)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CA: Wadsworth.
- Sapir, E. (1929) 'The status of linguistics as a science', *Language* 5: 207-14. Reprinted in The selected writings of Edward Sapir in *language, culture, and personality*, (ed.) by D. G. Mandelbaum, 160-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
- Steiner, G. (1975)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Oxford: Oxford UP.
- Straight, Stephen. H. (1981) 'Knowledge, Purpose and Intuition: Three Dimensions in the Evaluation of Translation', In Marilyn Gaddis Rose (ed.) *Translation Spectrum, Essays in Theory and Practic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Taft, R. (1981) 'The Role and Personality of the Mediator', In S. Bochner (ed.) *The Mediating Person: Bridges between Cultures* (53-88), Cambridge: Schenkman.

- Trompenaars, F. (1993) *Riding the Waves of Culture*, London: Nicholas Brealey.
- Vermeer, H. (1990) *Skopos und Translationsaufträge - Aufsätze*. Frankfurt: IKO.
- \_\_\_\_\_ (1992) 'Is translation a linguistic or a cultural process?', *Revista Ilha do Desterro A Journal of English Language, Literatures in English and Cultural Studies* 28: 37-49
- \_\_\_\_\_ (2000)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In Venuti, L.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 Weber, R. (1984) 'Reading: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4: 111-123.
- Wilss, W. (1990) 'Cognitive Aspects of the Translation Process', *Language and Communication* 10: 19-36.
- \_\_\_\_\_ (2001) *The Science of Translation: Problems and Methods*, Shanghai: Shanghai foreign language education.

<http://hubpages.com/hub/Intercultural-Communication>.

Korean Heritage 2001 Vol 4 No 2.

[Abstract]

**A Study on Cultural Layers and Culturemes:  
With a focus on Cultural Equivalence**

Lee, Seung Jae  
(Kyung Hee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takes a new approach to cultural translation by shedding light on cultural layers and culturemes. Acknowledging that culture is intricately interwoven to the translation process, the study draws on Hall's(1976) context based approach and Hofstede's(1990) cultural dimension, and applies them to the translation process. As a result, new concepts of culturemes (time, directness, factuality, contextuality from Hall's and power, individuality, masculinity from Hofstede's) are derived and made up of a subcategorization of cultural equivalence. Cultural translations also show the same pattern of Hofstede's Onion model, that is, the depth of cultural layers relates the gap between translations. Therefore, culture, having served as a last resort for the translation equivalence should be specified with the culturemes and studied for translator's cultural proficiency; cultural transfer requires a translator's linguistic, and interpretive competence of culturemes, that is, cultural knowledge, and cultural transferring ability to the target readers.

▶ Key Words: cultural translation, culturemes, cultural equivalence

이승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sjleeth@khu.ac.kr

관심분야: 문화번역, 관광통역, 번역이론과 교육

논문투고일: 2012년 1월 27일

심사완료일: 2012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16일